

군산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맞손'

전북도교육청-호원대, 교육협력 협약 체결... 문화예술체육·식품·보건의료 분야 교육과정 협력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1일 호원대 대회의실에서 호원대학교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거석 교육감 정혜영 교육혁신과장, 박경희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희성 총장 장병권 부총장 신상열 입학홍보처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우수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교류 △학생 및 교원의 학술활동 교류 △시설·장비 등 상호 이용 협력 △기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한 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력기로 했다.

특히 실용음악, K-POP, 공연미디어, 스포츠 등 문화·예술·체육분야를 비롯해 K-푸드 분야 K-뷰티분야, 보건의료 분야 등 호원대가 갖고 있는 자원을 군산 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강희성 총장은 "전라북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군산 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이 11일 호원대 대회의실에서 호원대학교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호원대학교와의 업무협약으로 군산 지역 설립 예정 특수학교를 포함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바른 인성, 체력 향상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강력한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전북교육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장수군 농업시스템학과 신입생 모집... 16일부터

장수군이 전북대학교 장수군 농업시스템학과 신입생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차에 걸쳐 모집한다.

군은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을 통한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전북대학교 장수군 농업시스템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총 120학점(전공 102, 교양 18)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집대상은 고등학교 졸업(동등한 학력 인정) 이상 학력 소지자로 관내 농·생명분야 산업체 등에 10개월 이상 재직할 소속 근로자 및 대표자 또는 관내 운영계약 체결된 영농조합 법인에 10개월 이상 소속돼 있는 조합원 등이다.

원서접수는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한 학과사무실과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2월 14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입학 문의로는 전북대 농업시스템학과 학과사무실(063-351-1901) 또는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063-350-2166)에 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원광대 김희경·장세진 연구원 고분자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부설 연구기관인 메카바이오연구소 김희경(사진 왼쪽), 장세진(사진 오른쪽) 연구원이 공동 1저자로 참여한 논문 '열임프린팅 기법을 이용한 나노구조를 가진 폴리카프로락톤(PCL) 필름의 제조 및 그 적용을 위한 항균성 평가'가 고분자 분야 국제학술지인 Polymers 저널(Q1)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를 통해 김희경, 장세진 연구원은 조영심(기계설계공학과), 박현하(기계공학과) 교수와 함께 순서온 공정 조건으로 FDA 승인받은 PCL 재료를 사용해 나노구조를 제작하고, 항균성과 더불어 유연하고 투명한 필름을 제작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특히 기계적 살균법은 나노구조 표면에 부착된 박테리아의 세포막을 기계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기술로서 항균특성이 없는 PCL에 항균력을 부여할 수 있어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활용법으로 관심을 받았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조직공학 및 재생 응용 분야에서 인체에 삽입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교과 과정 개편 효과 '톡톡'

군산대 수학과, 4차산업혁명시대 수요 부응하고자 빅데이터·딥러닝 관련 과목 등 정규 과정 추가 빅데이터공학전공 운영... 취업률 매년 50% 이상

국립군산대학교 수학과가 4차산업혁명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교과과정을 파격적으로 개편한 결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빅데이터·딥러닝 관련 과목, 금융·보험 수학을 포함하는 과목을 정규 과정으로 추가했으며, 공유전공 프로그램인 빅데이터공학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수학과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졸업생의 취업률은 70%가 넘었고, 매년 50% 이상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빅데이터 관련 교과과정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데이터분석회사에 취업하고, 통계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빅데이터공학전공은 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정보공학전공 교수진과 수학과 교수진이 협력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2학년부

터 빅데이터공학전공을 신청하여 빅데이터구조, 머신러닝설계, 빅데이터 영상처리 등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수학과 학과장 조광현 교수는 "수학은 이공계의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언어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수학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산대 수학과는 '수학의 힘'을 앞세워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기로 유명하다. 학생들은 입학 후 교수들과의 1:1 면담을 통해 진로 및 전공 상담을 받고, 상담 결과에 따라 학생들이 원하는 연구실에 배정이 돼 교수들의 꼼꼼한 지도를 받는다. 또한 전공자격증반, 멘토-멘티 프로그램, 머신러닝 동아리반 등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군산대학교 수학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관근 기자



지난 10일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서 필리핀에 건축할 한옥 자재를 선적하고 있는 모습.

필리핀 한옥타운 건립 본격

전북대, 지난해 한국계 기업과 협약 체결 컨테이너박스 2개동 규모 한옥 자재 선적 마닐라 중심 쇼핑몰에 정자·정원 등 조성

지난해 필리핀 한국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필리핀 마닐라 중심지에 한옥을 건립하기로 했던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한옥 자재 선적을 통해 본격적인 건립 사업에 돌입했다.

11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창캠퍼스에서 필리핀에 건축할 한옥 자재를 선적했다. 이날 선적은 컨테이너박스 2동 규모로, 필리핀에 건축할 한옥의 목부재를 비롯해 기와, 석재, 연장 등이다.

이는 지난해 7월 필리핀 마닐라 중심부에 위치한 필리핀 굴지의 기업인 아얌라(Ayala) 그룹의 대형 쇼핑몰에 한옥 정자를 비롯한 한국정원 조성사업인 K-TOWN Project를 추진하기로 기업인 CONGRATS 2와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건립에 사용될 목부재를 3개월 동안 건조하고 치목해 훈증한 후 선적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필리핀의 검역강화조치에 따라 3개월 미뤄졌다. 때문에 그동안 치목한 목부재의 손상 여부를 조사한 다음 다시 포장하고 훈증한 다음 이날 선적했다. 선적된 자재는 약 25일의 운송기간을 거친 다음 2월 말 준공될 예정이다.

필리핀의 K-TOWN 조성사업은 Ayala 그룹의 쇼핑몰 4층에 한국정자와 정원, 쇼핑몰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맞은편 일본 타운과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건립되는 정자에서 한류문화 공연과 이벤트 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높이고 크기 등을 조정, 필리핀 대표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타운 내에 대형 전망관을 설치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건축문화 등을 알려 한국문화와 필리핀 문화 교류의 가교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공사는 지난 7월 10~12일 전북대 기술진이 이미 현지조사를 마친 상태다. 특히 프로젝트에는 한옥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이 함께 했으며, 현지 조립에는 한옥건축학과 재학생들이 참여해 완공할 예정이어서 교육과 창업, 생산을 종합하는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해경 한옥기술종합센터장은 "검역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필리핀 국민들에게 일본보다 한 단계 높은 한국의 전통건축문화를 보여줄 계획"이라며 "공연과 이벤트 행사를 위한 현대적인 한옥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아울러 K-HOUSE의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의 건축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는 국내 한옥교육의 대표 기관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한옥설계전문인력양성사업'을 전주캠퍼스에서 진행하는 등 한옥관련 프로그램을 10여 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고창캠퍼스에서는 우리나라 유일의 학부과정인 한옥건축학과를 개설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